

## 영혼의 길을 찾아 떠났던 작가

문인들 배낭 속의 책 한권

길을 떠나려는 사람의 배낭은 가볍고 날렵해야 한다.  
하지만 길을 밝혀줄 지도는 꼭 챙겨야 한다.  
책은 바로 우리 영혼의 길을 열어주는 지도이다.

인간영혼의 탐험자였던 작가들의 여행은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들의 배낭 속에 무슨 책이 들어 있었을까. 그들이 남긴 여행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자아와 세계를 마주했던 위대한 정신의 정직한 기록을 엿볼 수 있다.

### 피테, 《이피게니에》

피테는 "1789년 9월 3일, 새벽 3시 칼스바트에서 몰래 빠져나왔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떠나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1년 9개월여 동안 베네치아·피렌체·로마·나폴리·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하며 《피테의 이탈리아 기행》(푸른숲)을 남겼다. 그가 여행의 동반자로 삼은 것은 자신의 시적 산문형식의 초고 《이피게니에》였다.

"이제 나는 원고 보따리에서 《이피게니에》를 가려내어 그것을 나의 동반자 삼아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로 가져간다. 날은 길고, 명상을 방해할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 주위의 수려한 풍경은 시상을 옥죄기는커녕 오히려 움직임이나 자유로운 공기와 더불어 시적 감각을 한층 더 활발하게 불러일으킨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92년 10월 동안 혼자 배낭여행으로 멕시코를 떠돌았다. 배낭에는 새로 산 워크맨과 몇개의 테이프 그리고 몇권의 책이 들어 있었다. 여행 동안 줄곧 《십대의 이상, 여행자: 릭 벨슨의 살아온 이야기》(필립 바쉐 지음)를 읽었다. "변경이 소멸한 시대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 속에는 아직까지도 변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파란의 삶을 살았던 음악가 릭 벨슨과 아메리카의 변경 멕시코에서 동양

의 작가가 건진 사색의 단편이다.

우울한 식민지의 지식인 이상에게 평안남도 성천으로의 기행은 이상문학의 원초적 시골과의 마주침으로 규정된다. 식민모국의 언어로 작성된 수필 〈첫번째 방랑〉은 1935년 8월경 만주행 야행열차의 정황이 묘사돼 있다. 그가 어두운 기차칸에서 꺼내 읽은 것은 일본의 문화잡지 월간 《세르팡》. 서양 최신의 모더니즘 예술을 다룬 고급잡지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나 자신을 암살하고 온 나처럼, 내가 나답게 행동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도 그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세상 불행을 제가끔 짊어지고 태어난 것 같은 오욕에 길든 일족(一族)을 서울에 남겨두고 왔다...나는 그들을 저주스럽게 여기고 증오조차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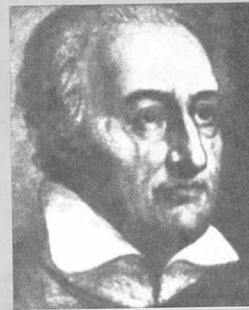
### 이상, 《세르팡》

그는 정신의 피로함에 "책을 덮었다. 활자는 상(箱)에게서 흘러떨어졌다. 나는 엄격한 자세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이제 혼자이니까"라고 되뇌다. 저주스러운 현실과 서양의 모더니즘이 빚어내는 정신적 긴장과 갈등이 천재적 지식인의 자의식 속에서 서거거리는 풍경이다.

요절시인 기형도는 〈짧은 여행의 기록〉을 남겼다. 1988년 8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출발해 대구와 광주를 지나 부산을 떠돌았다. "오후 2시쯤 여행가방을 싸야 했다. 책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며 짧게 절망했다. 결국 W. 페이터의 문예비평서 《르네상스》, 그리고 장 그르니에의 산문 《카뮈를 추억함》과 《일상적인 삶》 이렇게 세권을 가방에 넣었다." 그의 삶처럼 짧은 여행이었지만 그가 찾아 떠난 것은 '희망'이었다. "희망이란 말 그대로 욕망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가. 나는 모든 것이 권태롭다." 그가 이 책과 여행 속에서 과연 희망을 찾았을지는 이제 아무도 물어볼 수 없다.

길은 또 다른 길을 펼쳐놓는다. 그 길이 결국은 자신에 이르고 삶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곳에 먼저 길을 떠났던 이들과 함께 낯선 길을 걸어보는 것도 유쾌한 일이라.

— 박천홍 기자



피테



하루키



이상



기형도